

차별할 수 없는 14과 가치



배울 말씀

야고보서 2장 1-13절

읽을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

외울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 2:1).

매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

포인트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준비

성경, 필기도구,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기기

파이디온
예수빌리지

분명한 복음, 확고한 세계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동일한 아이인데 옷차림이 바뀌자 그 아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역시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차별이 일어날 여지가 있어요. 이런 차별은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차별’에 대해 가르쳐줘요.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동영상 사이트에서 ‘유니세프 비교 실험’이라고 검색하여 해당 영상을 함께 시청한다.



본문 말씀은 어떤 가상의 상황을 떠올리게 해요. 이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는 회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초대 교회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배척하기 전까지 회당을 사용했어요. 초대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동일한 단어인 ‘회당’으로 부르기도 했지요.

이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대조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은 입구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부유한 사람을 주목했을 거예요. 한편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도 모든 사람이 주목했을 거예요. 아마도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사람에게는 심한 악취가 났을지도 몰라요. 당시 옷차림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소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회당에 들어온 두 사람의 옷차림이 달랐던 것처럼 두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달랐어요. 부유해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

을 눈여겨보던 사람이 말했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회당에서 좋은 자리는 앞쪽에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앉는 긴 의자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자리였어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앞서 했던 말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이에요.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데 쓰는 가구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보다 매우 낮은 위치에 있으라는 거지요. 아주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차별’이란 단어에 담겨 있어요. 차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얼굴(외모)을 따라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보이는 옷차림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한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에 주목해야 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약 2:4).

차별은 악한 생각이며, 악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교재 ‘들음’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대답을 듣는다.)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며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요. 성별, 인종, 장애, 경제력, 외모, 지위 등 여러 이유로 상대방에게 선을 그어버리고 이것이 차별로 이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 2:1).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중의 하나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차별이 “네 이

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해요(약 2:8-9). 다시 한번 말할게요. 차별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DEEP Q

- 회당에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옷차림을 보고 신분을 나누었어요. 부유한 사람이 줄 이익과 가난한 사람이 줄 손해를 먼저 생각했어요.

- 회당에 들어온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지위에 있든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예배자로 대해야 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롬 2:11).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마땅히 차별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해요.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 먼저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길 바라요.

저를 따라 해주세요.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별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해요.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차별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재 ‘결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차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차별받은 이유 그리고 그때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보세요. 또 여러분이 차별한 경험이 있다면, 차별한 이유 그리고 그때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차별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사람의 노력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차별 몇 가지에 대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여러분 교재 ‘결음’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토론하고 나누어보세요. (주제별로 조를 나누어 토론하고 발표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야보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행동

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차별이 사라지게 해야 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이 사라지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차별을 없애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마친다.)